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http//www.mke.go.kr

2012년 6월 2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: 무역구제정책팀 박형건 과장(2110-5551), 권영희 사무관(5552)
산업피해조사팀 김남영 과장(2110-5561), 한상덕 서기관(4953)
덤핑조사팀 방순자 과장(2110-5571), 조연상 사무관(5573)
불공정무역조사팀 윤종욱 과장(2110-5581), 김오룡 사무관(5582)

무역위원회 25주년 성과와 시사점

- 덤핑·세이프가드조사 중심에서 지재권침해 조사로 수요가 확대 -

- FTA시대 대표적 안전장치(safety net)로서 새로운 전환 필요 -

□ 무역위원회는 80년대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사후적 수입관리제도의 필요성으로 87년에 출범하였으며,

○ WTO 출범('95), OECD 가입('96), FTA 추진('04~) 등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무역구제제도도 발전해왔음

① **(조직)** 상공부 자문위원회 ⇒ 독립 위원회('87)

② **(반덤핑·상계관세조사)** 관세청 ⇒ 무역위원회 일원화('96)

③ **(세이프가드조사)** 국내법 근거('86), 對중국 특별SG('02), FTA 양자SG('04)

④ **(불공정무역행위조사)** 특허권 등 지재권 침해유형 확대('89), 국내법령상 보호되는 지재권 포함('93),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유형 확대('01), 시정조치에 수출입·판매·제조 중지·반입배제·폐기처분 등 규정('01)

⑥ **(법체계)** 관세법·대외무역법 ⇒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('01)

⑤ **(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)** 교역상대국 제도·관행 조사의 법적근거 마련('0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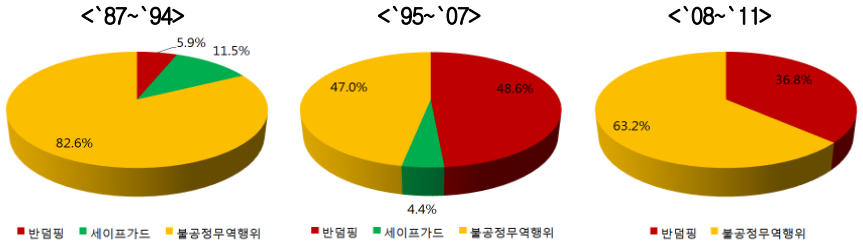
○ 국내 산업피해 구제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고, 수출중심 산업정책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는데 주력

□ 지난 25년간('87~'11말) 총 463개 품목을 조사하였고, 조사 유형은 반덤핑·세이프가드에서 불공정무역행위조사(지재권 등) 중심으로 변화

○ **('87~'94년)** WTO 출범이전에는 세이프가드 조사(25건), 상표권 위반 조사 중심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(180건)가 주를 이뤘으나,

○ **('95~'07년)** '95년 WTO 출범이후 반덤핑 조사(89건)가 늘고 세이프가드조사(8건), 불공정무역행위 조사(86건)는 상대적으로 감소

○ **('08~11년)**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덤핑 조사(21건)에 비해 특허권 침해조사를 중심으로 불공정무역행위조사(36건)가 증가



□ **(무역환경 전망)** 세계 무역규모는 FTA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, 무역구제제도는 공정경쟁의 장(level playing field)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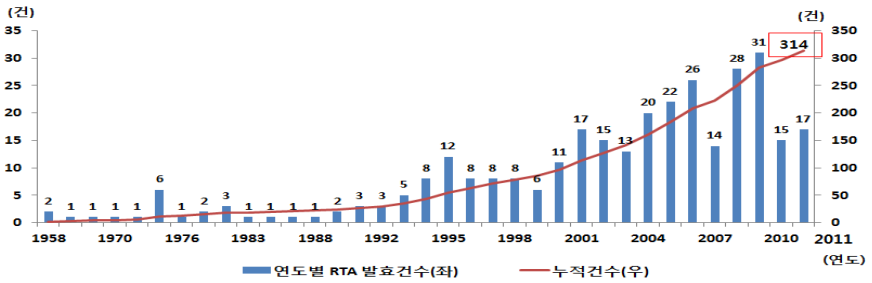
○ 우리의 무역규모는 '05년 5천억불에서 6년만인 '11년 1조불을 달성하였고, 이러한 신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

- 무역규모 확대에 따라 덤핑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 사례도 증가할 전망

○ FTA 체결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는 전세계적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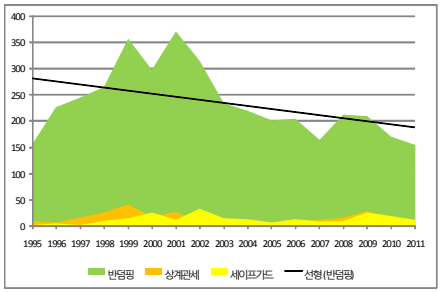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는 '04년 한-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의 FTA를 체결, 전세계 RTA(regional trade agreement) 314개가 발효 중('11.10월)

< 전세계 FTA 발효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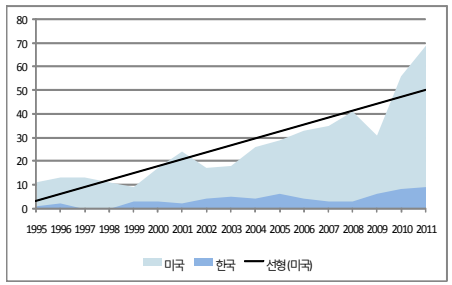


○ 무역분쟁은 덤핑, 보조금 지원 등에서 특허 등 지재권침해 분야로 전환 추세 지속

< 반덤핑/상계관세/SG 조사(WTO) >



< 지재권 침해조사 (韓+美) >



□ 개방에 따른 무역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구제 시스템을 "FTA시대의 안전망"으로 새롭게 전환할 필요

① 무역구제제도의 보완

○ **(반덤핑)** 그동안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 위주로 운영해왔으나,

- 사업화 초기단계에서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아야 하는 부품·소재산업 등의 산업 보호수단(retardation)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

i) **실질적 피해**(material injury) : 현재 성숙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유발

ii) **실질적 피해 우려**(threat of material injury) : 가까운 미래에 국내 산업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

iii) **실질적 지연**(material retardation) : 사업화 초기단계의 제품출시 등 지연

○ **(세이프가드)** FTA협정상 '양자세이프가드'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각국 운용사례 분석 및 국내 제도운용기반 마련

- 美·中 등 거대경제권과 FTA체결로 인한 수입급증시, 개방의 속도를 조절하고 국내산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 수단

○ **(불공정무역행위조사)** 상표권 및 특허권 외에 향후 영업비밀 침해 물품 조사 수요*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조사역량 확보

- 그간 영업비밀 침해물품은 경찰청에서 주로 수사해왔으나, 침해물품 수입 차단이 없이는 실효적 기업구제가 어려워 무역위원회 판정이 중요

* 경찰청 수사 검거건수: ('08) 72건 → ('09) 46건 → ('10) 40건 → ('11) 84건

○ **(양자 협력채널)** 미·EU 등과 FTA협정상 의무화되어 있는 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및 정례회의를 협력채널로 적극 활용

- 무역위 조사·판정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무역규제를 최소화하도록 조사개시前 사전협의 절차 등 활용 가능

② 무역구제 기능 활성화

○ **(사전 분석기능 확대)** 단계적 관세철폐 등 개방에 따른 품목별·업종별 영향을 점검하도록 산업경쟁력조사의 재설계 및 사전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

○ **(중소기업 이용활성화)** FTA 체결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무역구제 제도 이용을 높이도록 절차 간소화, 상담 등 지원서비스 개선

○ **(전문성 강화)** 특허·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커지는 새로운 무역구제 수요에 대응하여 조사기법 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

○ **(조사제도의 실효성 강화)** 국내 산업피해구제 수준의 합리화,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

첨부. 무역위원회 25주년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 1부.